



## 한국기업, 일과 생활이 분리되어야

카티 정보 마이클 뎀스터 과장

기업통신을 담당하는 카티정보에서 근무하는 마이클 뎀스터 과장. 춘천닭갈비를 유난히 좋아하는 그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유일한 외국인이다. 그는 카티정보내 신기술연구소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외국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담당하고 있다.

**호** 주에서 나고 자란 마이클 뎀스터 과장이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의 연속이지만, 뒤돌아보면 필연적이라 할 만하다.

호주 본가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기에 한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단다. 평생 배필이 된 그의 아내도, 2001년 카티정보에 입사하게 된 것도 이때 만난 한국인 친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이클은 10년 동안 전기분야의 회사생활을 접고 뒤늦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시 전공하였다. 졸업 직후 마이클은 친구의 나라에서 몇 달 간의 연수기간을 가졌다. 이때 한국친구를 통해 마침 카티정보에서 외국인 직원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단다.

###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조금 더 공부할 요량으로 우연히 왔다가 '운명의 여인'을 만나 필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 마이클의 눈에 한국인과 한국 기업문화는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은 역시 피할 수 없다. 동료들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도 대화가 무르익으면 슬며시 자리를 피하게 된다고. 그럴 때면 동료들은 마이클을 잡는다. "어디 가요?" 고맙지만 어느 때는 난감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

때로는 점심시간 후 홀로 산책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정 많은 동료들이 타향살이를 하는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나 싶어 염려를 할까봐 이내 합류를 하곤 한단다.

일주일에 3번 한국어학원에 다니는 마이클은 회사에 있을 때 못다한 '영어' 수다를 학원친구들과 푼다.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 오랜만에 말문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도 신나는 순간이다. 마이클이 수줍음을 잘 탄다는 평판은 제고해줘야 할듯.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는 이를 만난 마이클은 시종일관 대화를 이끌었으며 기분 좋은 유머를 발휘했다.

### 한국의 기업문화에 대해 마이클의 단상

마이클이 일하면서 느끼는 다소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것. 연장근무가 계속 이어질 때는 '공과 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아 힘들다고 했다. 야근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짙을 때는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눈치가 보인다고. 마이클이 느끼는 이런 불편은 호주의 기업문화에 익숙해진 마이클의 개인적인 느낌을 넘어 일의 효율성 면에서 우리 모두가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마이클이 한국 벤처기업 문화에 대해 쓴소리만 건넨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친근한 인상의 마이클은 회식 문화가 발달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는 참 좋단다. 그러나 원샷은 절대 NO라고.(참고로 마이클의 주량은 소주 한 병, 해장은 해장국이 아니라 부드러운 돈까스로 한다) 한국 사람들간의 끈끈한 정과 함께하는 문화에 대해 한편 깊이 공감하는 마이클은 언젠가 호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회식문화를 이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회식문화의 글로벌화, 웃음이 묻어나는 세계진출이 될 듯하다.